

추밀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추밀공파 파조 추향제가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 177번지 단소에서 익산, 원주, 충주, 상주, 인천, 대전, 성남, 용인, 수원 등지에서 130여 명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권오상 집례의 홀기에 따라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추밀공 파조 추향제는 초헌관 권오집, 아헌관 권오재, 종헌관 권이혁, 집례 권오상, 대축 권후식 등으로 분정하였다.

이날 추향제에는 권오돈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석 전 추밀공파총회 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병선 창화공 종중 회장,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권세환 전 교육장, 권오상 대종회 사무총장, 권영갑 감사, 권용주 매향공 고문, 권순호 전 매향공 회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기준 문경공 종중, 권용학 옹현공 종중 회장, 권길행 옹현공 종중 사무국장, 권순구 원주종친회장, 권순봉 익평공 종중 회장, 권혁중 문충공 종중 사무국장, 권오달 정보편집위원, 권병문 창화공 종중 총무, 권정하 전 익산종친회장, 권병후 수원종친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추향제에 앞서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멀리서 오셔서 고맙고 뵈게 되어 반갑다. 선조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 오늘 잘 모시고 다음에 또 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일 사무처장은 총회에 앞서 지난 이치대첩 기념제에 전국 각지에서 종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공 종중에서 150만원, 옹현공 종중에서 100만원을 찬조하고 추밀공파총회와 대종회에서 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했고 찬조 덕분에 기념제가 끝나자 점심을 잘 대접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한 폭우로 추밀공 단소 유입도 도로가 유실되어 화산부원군 종중과 협력하여 복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회비가 코로나 이전에는 345명의 회원이 납부를 했으나 작년에는 170여 명이 납부하여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폭 떨어졌으니 회계연도 결산일인 10월 말까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권경석 회관 마련 추진위원장은 추밀공 파총회를 설립한 지 45년이 됐다. 이렇게 가다가는 추밀공과 종헌공 추향제 치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고려에는 위도답이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위도답이 있었으나 추밀공 위도답은 없다. 조상을 위하



권경일 사무처장은 총회에 앞서 지난 이치대첩 기념제에 전국 각지에서 종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공 종중에서 150만원, 옹현공 종중에서 100만원을 찬조하고 추밀공파총회와 대종회에서 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했고 찬조 덕분에 기념제가 끝나자 점심을 잘 대접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한 폭우로 추밀공 단소 유입도 도로가 유실되어 화산부원군 종중과 협력하여 복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회비가 코로나 이전에는 345명의 회원이 납부를 했으나 작년에는 170여 명이 납부하여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폭 떨어졌으니 회계연도 결산일인 10월 말까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권경석 회관 마련 추진위원장은 추밀공 파총회를 설립한 지 45년이 됐다. 이렇게 가다가는 추밀공과 종헌공 추향제 치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고려에는 위도답이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위도답이 있었으나 추밀공 위도답은 없다. 조상을 위하

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후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거듭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회관 마련을 위해 수원에 상가 물건이 있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모금액으로 상가를 구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구입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더 모금해서 구입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모금한 내용은 이번 10월호 종보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내주시면 고맙겠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은 다가오는 10월 24일 충주에서 양촌 선생의 업적 조망 학술발표회가 개최되니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 또한 10월 30일에는 문충공 향사가 음성 묘소에서 봉행하오니 후손 여러분께서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총회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권영건 편집국장

검교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검교공파총회(檢校公派宗會, 회장 권경택)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경북 상주시 검교면 울곡리 송덕산 자락에 위치한 파조(諱 備, 10世)의 단소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파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중수 집례의 홀기에 따라 추향제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추향제는 초헌관 권기식 파중순, 아헌관 권오중 부회장, 종헌관 권태운 운영위원, 축관 권오철 상임부회장 등으로 분정하였다. 또한 권영창 대종회 회장이 축하 화환을 보내주셔서 더욱 빛이 났으며, 음복례는 시조 태사공 향례에서 행하는 방식으로 음복례를 하고 추향제를 마쳤다.

갑진년 정기총회는 권정택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상음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권정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파총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서울 파친회



권오운 부회장도 단합과 젊은 파친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를 하였다. 기타 토의에서는 권정택 회장이 코로나 및 내부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모임을 갖지 못하여 파총회 운영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여 파총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모두 박수로 답하였다. 위원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해산하였다.

권영호 검교공파총회 총무부장

2024 갑진년 제10차 부호장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현중)는 2024 갑진년 제10차 파조(派祖) 추향제를 10월 12일(음력 9월 1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 정자에서 참제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참석 인원이 적은 것은 최근 안동지방에는 농작물 추수기로 농촌 일손이 바빠서 참석자가 적었다.

이날 분정례(分定禮)는 권기영(權奇嶸)이 글을 쓰고 초헌관 권기병(權奇柄), 아헌관 권오인(權五仁), 종헌관 권영건(權寧健), 축관 권중대(權重大), 집례 권기영(權奇嶸)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이날 다섯 헌관들은 검은색 제복(祭服)과 갓을 쓰고, 제례위원들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참제원들은 평상복(平常服)에 유건을 쓰고 1시간 30분가량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권기영 집례가 어려운 한자로 홀기(笏記)를 창축(唱軸)할때는 권태욱 사무국장이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서 제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기병 도유사(都有司)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바쁘게도 불구하고 파조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도유사의 인사말이 끝나자 일원정 정자에서 1인당 1만5천 원짜리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내년 추향제 때 도유사로 선임된 권오인 아헌관에 게 망기(望記)를 전달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4 갑진년 부정공파 정기총회 및 파조 추향제 봉행



부정공파 신입회장 권호준(權孝俊)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2023년도 달력을 제작하는데 1백7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이 가운데 권오준 회장이 1백만 원을 찬조, 무난히 달력을 제작할 수 있었다.

곧 이어 임원개선에서 전형위원 7명을 뽑아 임원을 선출한 결과 회장에 권호준(權孝俊, 영덕군 영해), 감사에 권순박(權純博, 의성군 사촌), 권용선(權容銓, 종파) 등 2명을 선임하고 신입회장이 권순기(權純基, 종파)를 사무국장으로 지명했다. 부회장은 각 소문종의 추천을 받아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권호준 신입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 역대 회장들의 훌륭한 업적을 이어받아 파총회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했다. 신입회장은 경북 영덕군 영해 문중에서 20년간 총무 직을, 의병장인 장산 신동석 장군 숭보위원장, 중앙종친회 운영위원을 3년간 역임하였다.

정기총회를 마친 자리에서 분정례(分定禮)를 시작하였다. 권재규 감사가 글을 쓰고 초헌관 권오준(權五瑄), 아헌관 권영호(權寧鎬), 종헌관 권두찬(權斗燦), 분헌관 권수원(權洵源), 축관 권유달(權有達), 분축관 권재규(權在奎), 찬사 권순박(權純博)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부정공파는 작년에 선조(先祖) 11세(世)부터 16세(世)까

지 6명의 내외분 단소를 설치, 제사를 봉행하기로 하고 이번 추향제 때부터 분헌관(分獻官)과 분축관(分祝官)을 선임하였다. 분정례를 마친 헌관 및 참제원들은 놀곡사에서 음복례를 한 후 헌관 3명이 남색 제복(祭服)에 갓을 쓰고, 다른 제관과 참제원들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쓰고, 제수차(祭需車)가 제물을 싣고 재사 옆 맛있는 산에 위치하고 있는 단소로 이동하였다. 단소로 이동할 때는 참제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읊(誦)을 한 후 권기승 종중과 권오준 회장을 선두로 70여명이 줄을 지어 파조 단소로 이동하였다.

권순박 찬사의 창축(唱軸)에 따라 엄숙하고도 질서 정연하게 1시간가량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아쉽게도 이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소 애를 먹기도 했다. 이어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11세(世)부터 16세(世)까지 선조 6명의 내외분 단소에서 권수원 분헌관과 권재규 분축관이 30여분에 걸쳐서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오준 초헌관은 산신제를 지내고 하산했다.

추향제를 마친 참석자들은 놀곡재사로 돌아와 음복례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뜨끈뜨끈한 소고기 국밥을 곁들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신중년을 위한 가이드

맞춤형 생애설계를 통한 전직 지원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년 복아공파)



6. 행복한 은퇴를 위한 재무 설계 전략

2) 자산 관리와 배분 전략

은퇴 후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면, 은퇴 후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상금 마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비상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별도의 저축 계좌를 만들어 언제든지 필요한 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4) 연금 수령 시기와 전략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적어지지만, 연금 개시를 늦출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이를 통

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생활비 절약과 관리

은퇴 후에도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절약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취미 활동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장기적인 재정 목표 설정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나 손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재무 설계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재무 설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강 관리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가 중요한 재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료비는 예기치 않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가능한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해 두면 큰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킹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사회적 활동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취미 모임, 또는 전문적인 네트워킹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필요 시 재취업이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9) 가족과의 재정적 협의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가족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과 재정적 목표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자녀의 결혼이나 교육비, 부모의 요양비 등에 대해 미리 상의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이에 맞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